

시울 주보

제2471호

2023년 10월 22일(가해)

연중 제29주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 전교 주일)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eoul_jubo
카카오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유튜브 www.youtube.com/@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제대부(좌부터 성프란치스코, 성모성월), | 이남규 루카. 각 80x500cm, 달드베르 기법, 1984년. 대방동성당

입당송 | 시편 67(66), 2-3 참조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 이사 2, 1-5

화답송 | 시편 98(97), 1, 2-3 그리고 3, 3c-4-5-6 (◎ 2 참조 또는 3c-4)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로마 10, 9-18

복음환호송 | 마태 28, 19, 2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마태 28, 16-20

영성체송 | 마태 28, 20 참조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송영호 안토니오 신부 | 해외선교봉사국장

| 선교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십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느님의 뜻과 의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작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라고 하시며 가장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 하십니다. ‘겸손은 바로 하느님을 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남들 앞에 나설 때 거만하거나 화려하게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참된 겸손으로 나서려면 ‘기도’라는 동아줄이 성령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쉬는 것이요, 만족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느님을 참으로 원하는 자는 하느님과 함께하기에 세상에 원하는 바가 적으니 겸손합니다. 겸손과 기도로 하느님을 향해 있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참 하느님을 반영합니다. 하느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인 ‘사랑’을 품은 사람, 사랑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선교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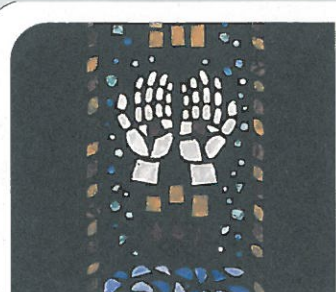
요즘 세상 걱정이 많습니다. 바다와 땅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기후 온난화는 몸으로 느낄 만큼 심각합니다. 많은 이

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버려지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주의는 서로의 이기심을 부추겨 경쟁하고,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 인류가 화합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해하는 삶, 한 사람 안에 새겨진 무한한 욕망으로 인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 땅은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느님의 개입이 요청되는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양식 삼으며, 사랑의 빛을 등대처럼 비추는 삶이 그것입니다. 비록 반딧불처럼 우리 자신이 작다 하더라도 수백, 수천만의 작은 빛을 비춘다면 세상은 그 빛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심는 사람들 복된 선교사들을 기억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벗으로 삼아주셨으니, 저도 예수님을 벗 삼아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사랑하며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벗 삼고 그분이 선사하신 구원의 은총을 사랑의 빛으로 드러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주님은 조용한 말씀으로 제 어지러운 마음을 맑게 하시고, 제 욕심을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저 스테인드글라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스테인드글라스는 하루 중 잠시만 빛나지만 마치 주님의 말씀처럼 말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 줍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10월 말씀의 이삭은 교정사목위원회에서 함께 동반하는 다양한 필자분들(임용직 노동자, 최고수, 해밀(피해자 유가족 모임), 자활근로자, 퇴임 교도소장)이 채워주십니다.



구경모 프란치스코 다미안 막시밀리아노 | 자활근로자

하느님의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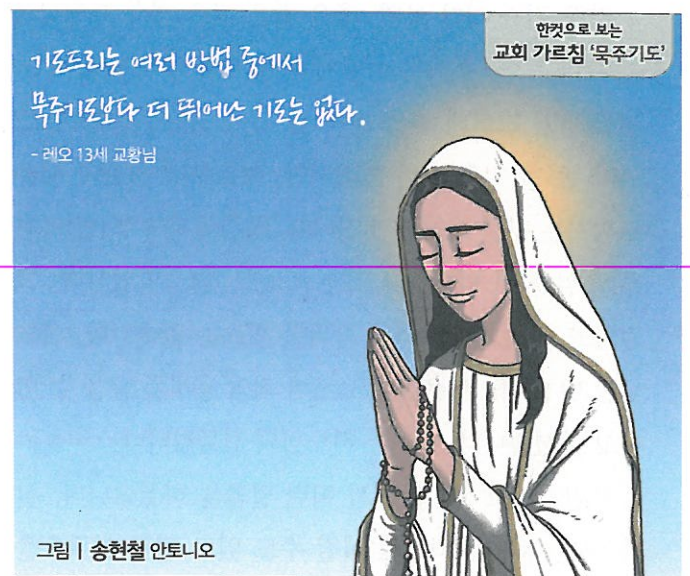
찬미 예수님! 행실로는 죄인이었으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구경모 프란치스코 다미안 막시밀리아노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에 기뻐하며 우리 주님 사랑의 기적을 전합니다.

저는 50이 넘도록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았으나 믿지는 못하여 죄인이 되어 교도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도 하느님 구원 사업의 일환이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교도소로 보내시고도, 치매와 하반신 불수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으신 저의 어머니와 생활 능력이 없으신 저의 아버님도 저 모르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통해 제가 그렇게도 읽고 싶어 했던 주석성경을 받게 해 주시고, 제 평생 소원이었던 성무일도를 하루에 4번 바치는 시간을 허락하시어 제가 당신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시는 길에는 항상 당신이 옆에 계시며 앞장서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교도소에서 저를 때렸던 어린아이들을 제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곳을 물어 물어 1년이 지난 후 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느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려주셨으며, 저 같은 몹쓸 죄인도 올바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밖의 세상에 오면 하고 싶었던 청소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성자가 된 청소부를 꿈꾸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여 열심히 신나게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욱 큰 기적은 저 같은 죄인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 줄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50군데가 넘는 곳에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동네 아파트 재활용 수거일에는 제가 깨끗한 것을 주워서 또 다른 곳에 기증할 수 있게끔 저의 눈과 손과 발을 건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온 탕자에서 자캐오로 더욱더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청소부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하느님 곁으로 갈 때는 같은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어가 우리 하느님, 성모님, 주님으로부터 “애야! 너는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좋더라!”라는 말씀을 들을 것이라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믿으며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사회의 각종 범죄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중에도 생각보다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중에 '중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미사에 참례할 때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좀 더 중한 죄에 대해서는 고해 성사를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 하느님이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무엇이 죄일까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포함될 것이고, 일상 생활에서 죄라고 여겨지는 행동도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죄의 본질을 '하느님을 거스름'이라고 봅니다. 하느님 안에,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지요. '하느님께 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회개로 번역하는 희랍어 '메타노이아'에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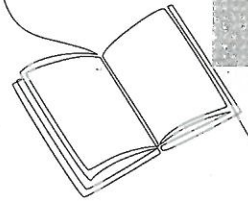
자꾸 죄를 짓다 보면, 혹은 같은 죄로 계속 고해성사를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죄를 전혀 안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좀 덜 지을 수는 있겠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의인도 하루에 일곱 번 넘어진다."(잠언 24,16)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죄로 넘어질 수도 있고 영적 어두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와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것, 그분을 향해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하느님을 피해 숨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혼자 울다 죽습니다. 반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고 통회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 진정한 사도로 거듭납니다.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은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마음 놓고 죄를 짓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느님이 용서하시리라는 신앙은 그분과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참된 것이라면, 가능하면 하느님을 등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느님의 용서를 놓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따끔하게 훈계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갈라 6,7)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10)

사도들의 기쁨과 삶을 담은 사도행전 읽기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과 야고보 만남 (21,1-26)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 | 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바오로는 밀레도스에서 에페소 원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과 마지막 기도를 드린 뒤,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은 로마로 가는 여정의 첫 단계입니다. 바오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겪어야 할 불행한 일들을 예감하지만, 이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는 루카복음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루카 9,51)

바오로는 에페소 원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20,22) 예루살렘의 여정은 바오로만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하가보스라는 예언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바오로는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정반대로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의 지시도 함께 들립니다. 루카는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왜 써 놓았을까? 아마도 주님의 소명과 사명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루카의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소명자의 의지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바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 길의 끝에는 고난이 있겠지만, 이 여정은 바오로의 의지가 빠진 여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주변의 간곡한 부탁에도,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

습니다.”(21,13)라며 강력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와 바오로의 의지가 하나 되어 로마로 향하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바오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따뜻한 환영과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와 만남이 이어집니다. 바오로는 야고보와 원로들에게 자신의 성과,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진 하느님의 결실을 보고합니다. 야고보는 바오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바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 줍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바오로는 분명 구원은 율법의 충실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그들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르침을 접어두고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소신보다는 평화와 일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소신을 접는다고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충실성이 약화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의 3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오로의 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각오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합니다.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방문 (Visitation)〉, 엘 그레코 (El Greco)



최호영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음악과 교수·주교좌 명동대성당 성음악감독

‘찬가’(Canticum)란 신약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시편을 제외한) 서정적 감사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노래’(성 아우구스티노)로서 비성서적 가사를 사용하는 ‘찬미가’(Hymnus)와는 구별됩니다.

찬가는 ‘작은 찬가’와 ‘큰 찬가’로 나뉩니다. ‘작은 찬가’는 구약과 (복음을 제외한) 신약성경에 나오는 찬가들이며, ‘큰 찬가’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3개의 복음 찬가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작은 찬가’에는 미리암의 노래(탈출 15장), 한나의 노래(1사무 2장), 세 젊은이의 노래(다니 3장) 등이 포함되며, ‘신약성경의 작은 찬가’에는 고대 그리스도 찬가(필리 2장), 그리스도 몸에 대한 찬가(골로 1장), 하느님 계획에 대한 찬가(에페 1장), 어린양 찬가(묵시 4장), 알렐루야 찬가(묵시 19장) 등이 있습니다.

3개의 ‘큰 찬가들’(Cantica magna)은 ‘복음 찬가들’(Cantica evangelica)이라고 하는데, 루카복음에 나오는 세 개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즈카르야의 노래(Benedictus, 루카 1,67-79), 마리아의 노

래(Magnificat, 루카 1,46-55) 그리고 시메온의 노래(Nunc dimittis, 루카 2,29-32)가 그 노래들입니다. 이 복음 찬가들은 시간전례에서 부르는데, 즈카르야의 노래는 아침기도에서, 마리아의 노래는 저녁 기도에서, 그리고 시메온의 노래는 끝기도에서 낭송하거나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사촌이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될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인사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라고 외치자, 마리아가 이에 응답합니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Magnificat anima mea Dominum)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

‘마리아의 노래’ 혹은 ‘마니피캣’(Magnificat)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원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찬가’(Canticum Beatae Mariae Virginis)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위대함, 거룩함, 권능, 올바름 그리고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이 찬가는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구원 업적을 찬양합니다.

시간전례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8가지 시편 창법에 따라 고유한 후렴과 함께 교창 형식으로 노래하며, 장엄한 전례에서는 분향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현대 작곡가 마리아노 가라우(Mariano Garau, 1952-)의 마니피캣은 단성 성가와 다성 성가를 ‘교대로 노래’(alternatim)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❶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루카복음을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루카 2,11)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원받는다든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뿐만 아니라, 미사 중 신부님께서 읊는 기도문 안에서도 자주 반복됩니다. 가령,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흔하게 듣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순간들을 포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고 하니 어디서 읽었던 어느 신학자의 단상이 떠오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은 하느님을 찾는 각자 나름의 발버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온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 충만하게 젖어두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기에, 사람은 어떻게든 하느님을 찾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쇼핑 중독에 빠진 자매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온 집안에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가득 차 있고,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동하려면 쌓여있는 택배 상자 사이를 계걸음 하듯 요리조리 피해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마저 되었는데도, 자매님은 인터넷으로 새로운 주문을 하기 바빴습니다. 남들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샀다는 묘한 만족감, 곧 새 물건이 온다는 설렘. 이런 감정들이 마음의 공허함을 잠깐이라도 채워주기에 쇼핑을 끊을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본인도 몰랐겠지

만, 이 자매님이 찾고 있었던 것은 하느님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성 다블뤼 주교님)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벅차오르도록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곱았던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 그러나 텅 빈 마음의 갈증이 폭풍처럼 휘몰아쳐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 대신 유사품인 쇼핑에 손이 갔을 뿐이었겠지요.

교회가 공적으로 설명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은총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이러한 최초의 창조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기에, 지금처럼 고통 받으며 혼돈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와 고통, 불안 그리고 죽음을 향한 공포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사도 16,17 참조)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태초의 창조 상태 지위를 회복하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은총을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하느님 품에 안기시기 직전에 유언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죽음의 공포마저 뛰어넘을 만큼, 하느님과 일치하여 마음이 행복으로 벅차오르는 기쁨,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구원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10월 22일)은 '전교 주일'로 선교 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 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에 보내 전 세계 선교 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씁니다. 전교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 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월 27일(금)은 교구청 직원 야유회로 교구청 모든 부서 휴무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3년 10월 23일 정규하 아우구스티노 신부(80세)
- 1994년 10월 26일 구천우 요셉 신부(97세)
- 2021년 10월 28일 경감실 사도요한 신부(72세)

묵주기도 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청 알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10월26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제: 범죄 청소년들을 위한 미사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문의: 02)921-5093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11월2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 봉사국) /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문의: 02)727-2407, 2409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사목교서 해설 / 회비 없음(11월14일까지 접수)
때: 11월21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제1회 그린아트페스티벌 전시회

소방관, 예술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명문화나눔의 장
때: 11월1일(수)~3일(금) 11시~19시
곳: 172G 갤러리(전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주최: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 후원: 서울시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명동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녘 본당'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89차 미사 10월2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춘천교구 평강 본당, 이천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2023 한국평안협 열린세미나 참가자 모집

주제: 경청과 대화를 위한 가톨릭 교육 모델의 적용 가능성 / 회비 없음
때, 곳: 11월4일(토) 14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명동)
발제: 김남희 교수(가톨릭대, 주교회의의 평사위 위원, 평사연 연구위원) / 토론: 조성봉 신부(명동본당 주임, 전 교구 사목국장), 박응임 교수(안동대, 평사연 연구위원), 현재우 박사(평사연 부소장)
문의(사전접수): 02)777-2013 / 홈페이지(www.clas.or.kr) 온라인 접수

2023 하반기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 교육생 모집

사목국 노인사목팀에서는 손자녀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혹은 예비 조부모)들이 '신앙의 전수자'로서 가톨릭 신앙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톨릭 조부모 신앙학교>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교육대상 및 인원: 손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조부모 혹은 예비 조부모, 70명(선착순 마감)
곳: 영성센터 B203호(구 계성여고) / 회비: 5만원
신청기간: 10월31일(화)까지 / 문의: 02)727-2385, 2386(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교육과목	교육일시: 11월13일 · 11월20일 · 11월27일 · 12월4일(월) 오전 10시30분~12시30분(총 4회)
신앙전수법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가톨릭클씨문화연구소 '그리움을 쓰다' 전: 1, 2전시실
오테미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10월18일(수)~26일(목)

(2023 가을) 신앙, 인문학을 만나

'바로로 사도가 마주했던 신앙 공동체들'
때: 10월26일~11월9일 매주(목) 19시30분~21시
곳: 영성센터 B203호 / 강사: 김상우 신부
접수: 서울대교구 문화학교(<http://culture.catholic.or.kr>)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문화팀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건진성사를 받은 서울대교구 신자(만 65세 이하)
교육기간: 11월29일부터 매주(수) / 16주 과정
곳: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11월21일(화)까지 접수 /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www.catholicpolice.or.kr) 참조
문의(신청):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3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영성심리특강, 문중원 신부님 내면아이의 회복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11월1일~30일 / 문의: 010-8867-3217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강사: 김현우 신부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12월15일(금)~17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2024년 1월19일(금)~21일(일)	구본만 신부(서울대교구)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1차	11월17일(금)~25일(토)	문의:
제122차	12월29일(금)~2024년 1월6일(토)	061)373-3001,
제123차	1월19일(금)~27일(토)	010-3540-9001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때: 10시~14시 미사(점심 제공) / 강사: 이한택 주교
 곳: 파티마 평화의 성당 / 문의: 031)952-6324

이한택 주교와 함께 하는 첫도 신심피정	11월4일(토)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	11월13일(월)
몽포르의 성루도비코 묵주기도 피정	매주(목)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 순례	11월16일~18일, 11월21일~23일, 11월26일~28일, 12월1일~3일, 12월9일~11일, 12월15일~17일, 2024년 1월20일~22일(눈꽃산행)
연말연시 특별 피정	12월29일~1월1일(눈꽃산행)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10월30일~12월4일 매주(월) 9시30분~12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02)756-3473, 010-2759-3473

10월30일(월)	소개강의, 세속정신 죽음 1	이선영 수녀
11월6일(월)	세속정신 없애기 2	박상희 신부
11월13일(월)	자기 자신을 알기	조용준 신부
11월20일(월)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기	이순옥 수녀
11월27일(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양창우 신부
12월4일(월)	봉헌의 생활화	신동규 신부

가정선교회 11월 피정·미사(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11월1일(수) 12시30분~17시 강사: 김용렬 신부, 조경래 신부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도 미사	11월4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한철호 신부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1월18일(토) 12시30분~17시 강사: 한상우 신부 /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회비: 115만원(3박4일) / 문의: 010-3645-9028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1월10일(금)~18일(토), 12월8일(금)~16일(토)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11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11월10일(금)~12일(일), 명상의 집(우이동)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고 마르타 수녀

위령성월대회(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때: 11월5일 오후 1시~5시(미사 4시) / 문의: 02)867-7900
 교통: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환승 500·504·643·651 천주교성령봉사회정류장 하차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땅끝기도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때, 곳: 11월11일(토), 분원(보문동)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노들담 수녀회 청년 피정 '기도하고 노동하라'

대상: 45세 이하 미혼 남녀 청년 / 회비: 8만원
 때, 곳: 11월18일(토) 10시~19일(일) 15시, 노들담 생태영성의 집(강화) / 문의: 010-3930-6730

성모승천수도회 도보 성지순례 수도원 순례

1) 도보 성지순례 / 문의: 010-2378-9104
 때, 곳: 12월16일(토)~17일(일), 영광 순교자 기념성당의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2) 중부 유럽 수도원 순례 / 문의: 010-2378-9104
 때, 곳: 2024년 2월2일(금)~14일(수), 오스트리아·독일 외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1월3일~5일·11월11일~13일·11월17일~19일·11월23일~25일·11월27일~29일·12월8일~10일·12월16일~18일, 눈꽃산행 2024년 1월6일~8일·1월12일~14일 연말연시(해넘이·해돋이·눈꽃산행) 12월30일~1월2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교육

미사와 전례곡 등을 위한 오르간 레슨

문의: 010-4964-5274 제14동작지구(혹석동)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 오전반 10시·오후반 14시
 곳: 삼동역 분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위령성월 금요 영성특강

곳: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1 명례방
 문의(접수): 02)3147-2402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4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2월4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6일(월)~17일(금)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서강대학교 '가톨릭 지성인을 위한 영성 강의'

주제: 부르심과 응답 / 문의: 02)705-4711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 회비 없음
 때: 10월23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3311-9593 김지웅 선생

서울성모병원 뇌졸중의 날 무료 건강강좌

내용: 일반인 대상 뇌졸중의 날 무료 건강강좌
 때, 곳: 10월26일(목) 9시30분~낮 12시, 서울성모병원(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무료 건강강좌이며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강좌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소책자와 간식을 제공합니다
 문의: 1588-1511 홍아름(뇌졸중 코디네이터) 뇌혈관센터

신부와 함께하는 영성독서 프로그램(영성독서지도사 양성 포함) / 문의: 02)439-3811

대상: 신자들의 영적 성숙 및 교회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 / 회비: 10만원
 내용: 영적독서 과정(6주), 수료증이나 자격증 수여
 때: 10월23일부터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명동대성당 교육관 304호
 주최: 가톨릭독서아카데미(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곳: 2024년 1월부터 1년간, Zoom
 회비: 3개월 30만원 /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수)	19시30분~21시30분 (목)	10시~12시
-----	-------------------	---------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w.cpbccamp.com)

미국 LA영어캠프 (3주)	2024년 1월10일~30일 / 디즈니랜드, UC버클리·스텐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니언,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 (4주)	1월10일~2월3일 /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새남터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모집
순수 봉사 / 대상: 성가를 봉헌할 남녀 교우
연습: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전후 1시간씩(10시~13시) / 문의: 010-5470-6773

미사

역삼동성당 직장인 미사 / 문의: 02)553-0801
때, 곳: 매주(수) 낮 12시, B1 경환당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0월25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0월24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0월27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나눔: 권태문 신부(성골롬반외방선교회)
때, 곳: 10월28일(토) 16시, 골롬반 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 문의: 02)953-0613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미사
내용: 연명과 가정을 위한 기도과 미사
때, 곳: 11월3일(금) 11시3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월례미사 / 문의: 02)749-4596
중남미 선교와 사제양성을 위한 후원미사입니다
때: 10월30일(월) 14시 / 집전: 송영호 신부
곳: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0월2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이종원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송우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10월 영화 치유 미사·제10회 가톨릭영화제

1) 10월 영화 치유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0월25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2) 제10회 가톨릭영화제
때, 곳: 10월26일(목)~29일(일), 대한극장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무료(자율기부제) 영화 상영
상영시간표는 홈페이지(caff.kr) 참조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가톨릭여성연합회 10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때, 곳: 10월24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리류·기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클라라봉쇄수도원은 보수공사로 유지가 어려워 재건축이 불가피합니다 도움을 겸손히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모니카의 집(공동생활가정) 입소르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모집인원: 1명 / 시설운영: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곳: 광진구 자양로 33길 36(어린이 대공원 동문)
문의: 02)455-3593, 010-8707-6913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0월31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업포기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성가복지병원 직원 모집 / 문의: 02)940-1503
분야: 내과전문의 1명, 시설과·전기·기관기사 자격증 소지자 1명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가정입양원 안전관리원 모집
대상: 운전 능숙하신 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근무내용: 차량 운행, 시설 안전관리 외 자세한 내용은 성가정입양원 홈페이지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64-4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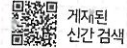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명동밥집) 직원 모집
분야: 주방조리(계약직) / 채용시까지 접수
대상: 연령·학력·성별 제한 없음(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조건: 주3일(수·금·일 / 일요일 근무 필수)
자세한 내용,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은 가톨릭 굿뉴스 홈페이지-게시판-홍보마당-구인·구직 참조

서울대학교구청 전산정보실 직원 모집
대상: 세레받은 분으로 개발언어 JAVA, C#(닷넷), DB 관련(PostgreSQL, MSSQL) 업무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분야: 교구사무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1차 서류 전형, 2차 구술시험, 3차 최종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2일(일)까지 이메일(acoinsa@seoul.catholi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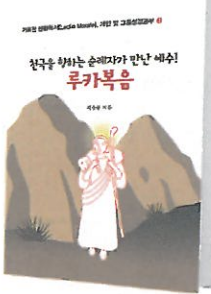
서울대학교구청 정의평화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레받은 분으로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사회교리의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분
분야: 사회 현안 자료, 조사연구, 일반 행정 업무 담당 교구사무원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11월12일(일)까지 이메일(ac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관구관(신길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10월29일(일) 9시	본원(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매주(토)	수도원(남양주 별내)	010-4241-1210 성소 담당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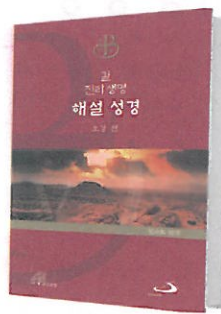


신간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가 만난 예수!
루카복음

곽승룡 지음
기쁜소식 | 516쪽 | 3만원
문의: 02)762-1194

개인과 그룹 각각에 알맞은 성경공부 방법을 제시하고 생활 속에서 루카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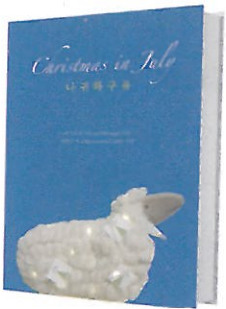


신간

길 진리 생명
해설 성경
- 오경편

임숙희 편역
바오로딸 | 516쪽 | 3만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이 책은 교의적, 성서학적, 전례적 해설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진리, 성서학적 해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영성적, 신학적 해설),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할 것인가(생명, 전례적 해설)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의 성서 독법을 제공한다. 오경 편에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실었다.



신간

Christmas in July:
나귀와 구유

에스오에스(SongOfSongs) 지음
헤본은어스 | 188쪽 | 2만원
문의: 010-5271-6238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어떠한 일이 삶을 바꾸어 놓는 특별한 의미를 얻었다면 그날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는 성탄일 것이다. 이 책은 우리들 삶 안에서 성탄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주어진 상황 설정에 독자가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고 완성하여 나 자신, 타인과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공연

서울시합창단 시그널:
오르간과 함께하는 합창음악

입장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시야 방해석 2만원 / 문의: 02)399-1000 세종문화회관 컷 1544-7744 롯데콘서트홀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안내문 자참시 주보1부로 4명 20% 할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은 오는 10월 24일(화) 롯데콘서트홀에서 '시그널 : 오르간과 함께하는 합창음악'을 선보인다.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노래, 중세 그레고리안 선율의 뒤쫓플레 <레퀴엠>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작곡가 5인의 위촉 창작곡 초연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음악의 신호를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대건첼버콰이어
제24회 정기연주회

입장권: 전석 2만원
문의: 010-3720-5740

1996년 창단 이래, 한결같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기의 교회음악만을 연주해 온 대건첼버콰이어의 여섯 번째 켈렌카 연주 시리즈로 미사 보티바(Missa Votiva, 미사 봉헌)가 10월 28일(토) 20시, 신월동성당에서 연주된다. 켈렌카는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바흐가 존경했던 작곡가로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으나 새롭게 조명되면서 '가톨릭의 바흐'라고도 불린다.



엑스포

2023 포콜라레 EXPO

입장권: 1만원(각 날짜별 1매씩 구입, 강당 내 프로그램은 미리 접수하여야 참여 가능)
접수: 10월 4일 / 포콜라레 홈페이지(<http://expo.focolare.or.kr>)에서 가능
문의: 010-3162-3750, 010-6685-5489

포콜라레 엑스포가 10월 28일(토) 13시~18시 · 10월 29일(주일) 10시 20분~18시, 서강대 이나시오관 & 청년광장에서 열린다. 영성 산책과 다양한 토크쇼로 오늘날 여러 사회 분야에서 포콜라레 영성이 어떻게 구현되어 가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제2사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진현구(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위령의 날 미사

11월 2일(목)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0시 (합동위령미사)

11월 2일은 위령의 날을 맞아 죽은 이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 미사 후에 연도가 있습니다.

◎ 예비신자는 11월 5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주일반	10월 22일(주일) 오전 9시 ~	교육관 304호
수요반	10월 25일(수) 오후 8시 ~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9월~10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김영희	마리아	1-3	김선희	마리아	3-3
권지영	아네스	4-2	송민섭	토마스	5-2
구연진	아가다	6-5	김용한	가브리엘	6-5
오승현	바오로	7-1	김규민	토마스	7-2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10월 2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병자영성체

일시 : 10월 27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성모신심미사 : 11월 4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11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 11월 7일(화) 오전 10시

◎ 수험생 축복 미사 : 11월 14일(화) 오후 7시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6일(목) 오전 8시 40분~오후 2시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회비 : 만원

◎ 구역 성지순례 일정

날짜	구역	장소	문의
10/28(토)	1	솔피, 해미성지	010-9092-1708
10/28(토)	4	풍수원성지	010-3709-5836
10/28(토)	8,9	풍수원성지	010-6407-9145 010-3239-6553
10/28(토)	11	감곡개배성모순례지	010-8926-8267

◎ 2023 연희동 청년 음악회

한푸름 청년 성가대와 임마누엘 홀리챔버가 한마음으로 준비한 가을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 10월 21일(토) 오후 7시 / 대성전
※ 10월 21일(토) 오후 6시 미사는 없습니다.

◎ 여성 울뜨레야 야외행사

일시 : 10월 24일(화) 오전 8시 성당에서 출발
장소 : 포천 광암이벽기념성당

◎ 반디주일학교 가을 성지순례

일시 : 10월 29일(주일) / 서소문 역사공원
문의 : 지파 교감 (010-8081-9812)

◎ 연성회 야외행사

일시 : 11월 4일(토) 오전 8시 성당에서 출발
장소 : 마재성지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 2시 ~ 7시 30분
장소 :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연령회 남·여 회원 모집

문의 : 루시아 회장 (010-6288-1683)

◎ 부활판공성사, 성탄판공성사를 보신 후 반드시 성사표를 제출하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교적에 성사 이력이 3년동안 입력되지 않으면 냉담자로 처리됩니다.

◎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10. 1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46	829 (40.5%)	793 (38.8%)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장남송 요셉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10월 9일 ~ 15일)

곽선모 오천원 김옥녀 오만원
익명 일십팔만원 익명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8주일)

교무금 7,270,000원
주일헌금 6,043,520원

입당 63 봉헌 221,213,511 성체 158,498,334 파견 450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